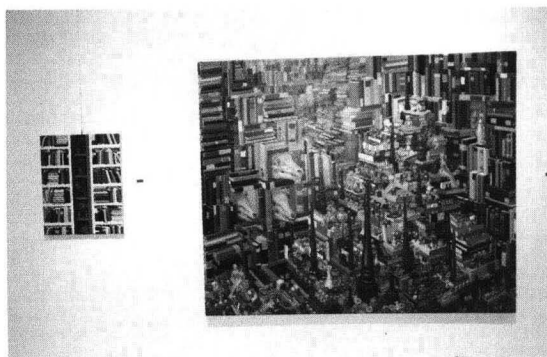




한길사 창립 30주년 기념전 <책의 기억>

책이 기억하는, 책을 기억하는 풍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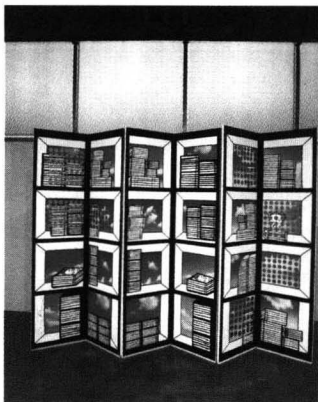
책은 시대와 사상을 담아내는 그릇이기에, 책을 만드는 작업이란 지난(至難)한 작업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고독한 작업이다. 문학작품을 쓰는 작가에게도 그럴 뿐 아니라 그 작품을 하나의 책으로 만든다는 것도 역시나 그렇다. 그 지난한 기억들을 담아낸 전시가 지난 12월 21일부터 열리고 있다.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한길 북하우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<책의 기억>전은 한길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로 1월 28일까지 계속된다.

책을 주제로 한 30여 점의 미술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는 강애



란, 고영훈, 한만영, 홍경택, 노주환, 박지숙 등 책을 주제 삼아 작품 활동을 해온 19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. 영상설치와 목판화, 납활자, 철구조물 설치, 스테인리스 스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전시회이다. 전시회를 관람한 대학생 윤민경 씨는 “책과 다양한 미술 장르가 만나 독특한 책을 만들어낸 느낌”이라면서 “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잘 짜여진 책 한 권을 읽는 느낌을 받는다”고 말했다.

한길사 김언호 대표는 “한 권의 책은 가장 보편적인 미학체



계라는 생각을 책을 만들면서 더욱 하게 된다”면서 “책만들기 30년을 맞으면서, 다시 왜 책을 만드느냐 라는 물음을 우리들 스스로 제기한다. 그 물음의 일환으로 <책의 기억> 전을 기획한다”고 밝혔다.

미술평론가인 홍익대 김복영 교수는 <책의 기억> 전을

“상형의 발전사를 회고하는 뜻 깊은 주제전이자, 참가 작가들이 모두 같은 주제를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앤솔로지전”이라고 평가했다.

아울러 “자연과 인간이 애초 아날로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망각한 채 인류의 과학기술이 찾아낸 디지털이라는 제2의 자연에 묻혀 아날로그의 본질을 망각하고 그림으로써 문화의 뿌리가 훼손되고 있음을 경고할 뿐 아니라, 책과 예술이 그 수호자임을 확인시킴은 물론, 이를 위해 아날로그 문화의 본질로서 텍스트와 관련한 문자기호, 나아가서는 상형기호를 하나의 장으로 묶어낸다”면서 “이번 전시는 우리의 전시기획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많지 않은 기획전임에 틀림없다”고 강조했다.

한편 한길사는 올 3월 개관을 목표로 한길 북하우스 갤러리 뒤쪽 터에 ‘윌리엄 모리스 박물관’을 건축 중이다. ‘근대 디자인의 아버지’로 불리는 윌리엄 모리스는 자신의 디자인 개념을 책에 적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책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시인이자 아나키스트 사상가로도 유명하다. **한길사**

취재: 장동석 기자 | 사진: 박신우 기자

